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은?

조사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(총 1,000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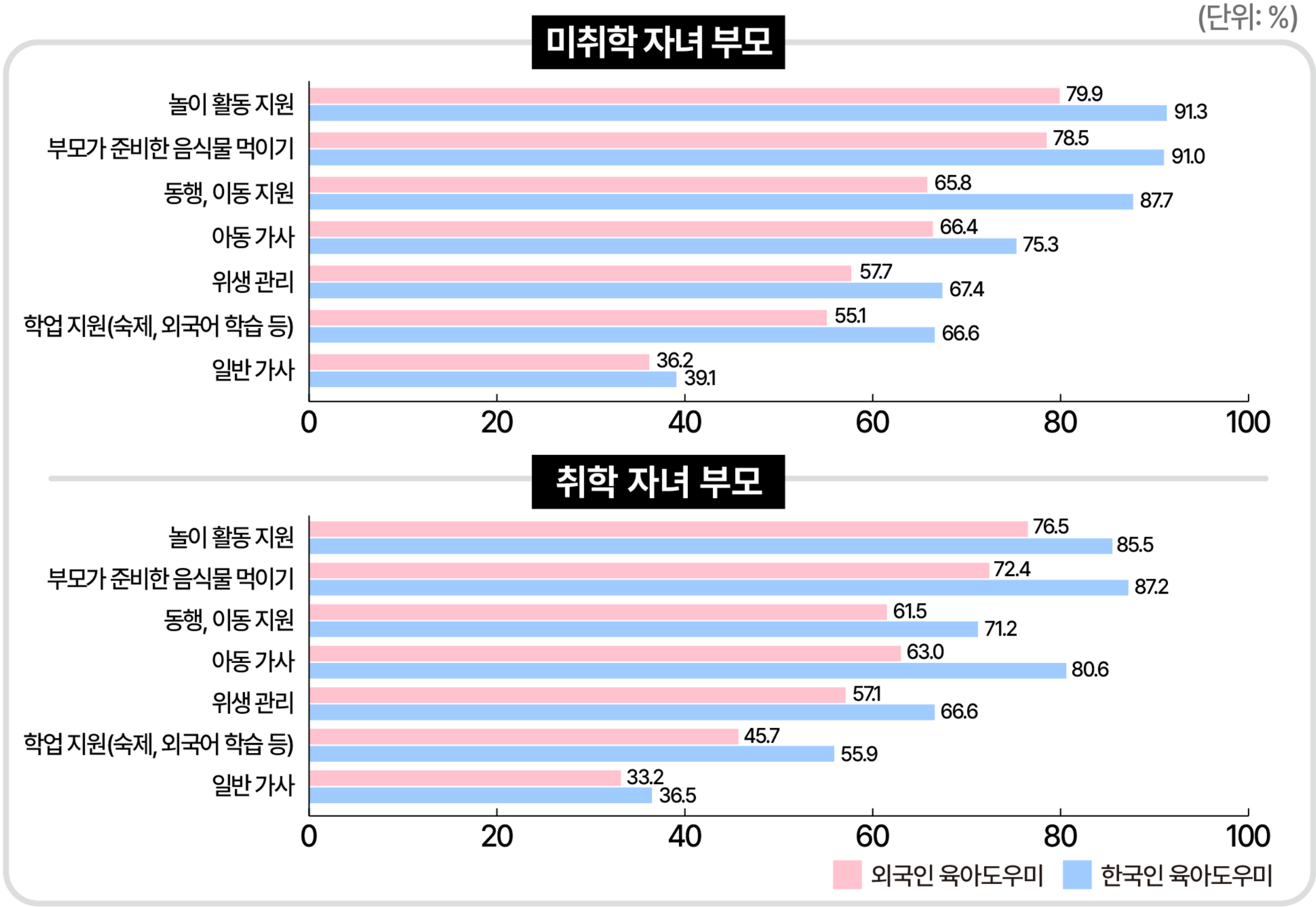
MRTC
Migration Research & Training Centre
이민정책연구원
Partner Organization of IOM

1

육아도우미가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서비스

육아도우미에게 기대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한국인 육아 도우미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 육아도우미보다 높았어요.
아동 돌봄과 관련 없는 일반 가사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았어요.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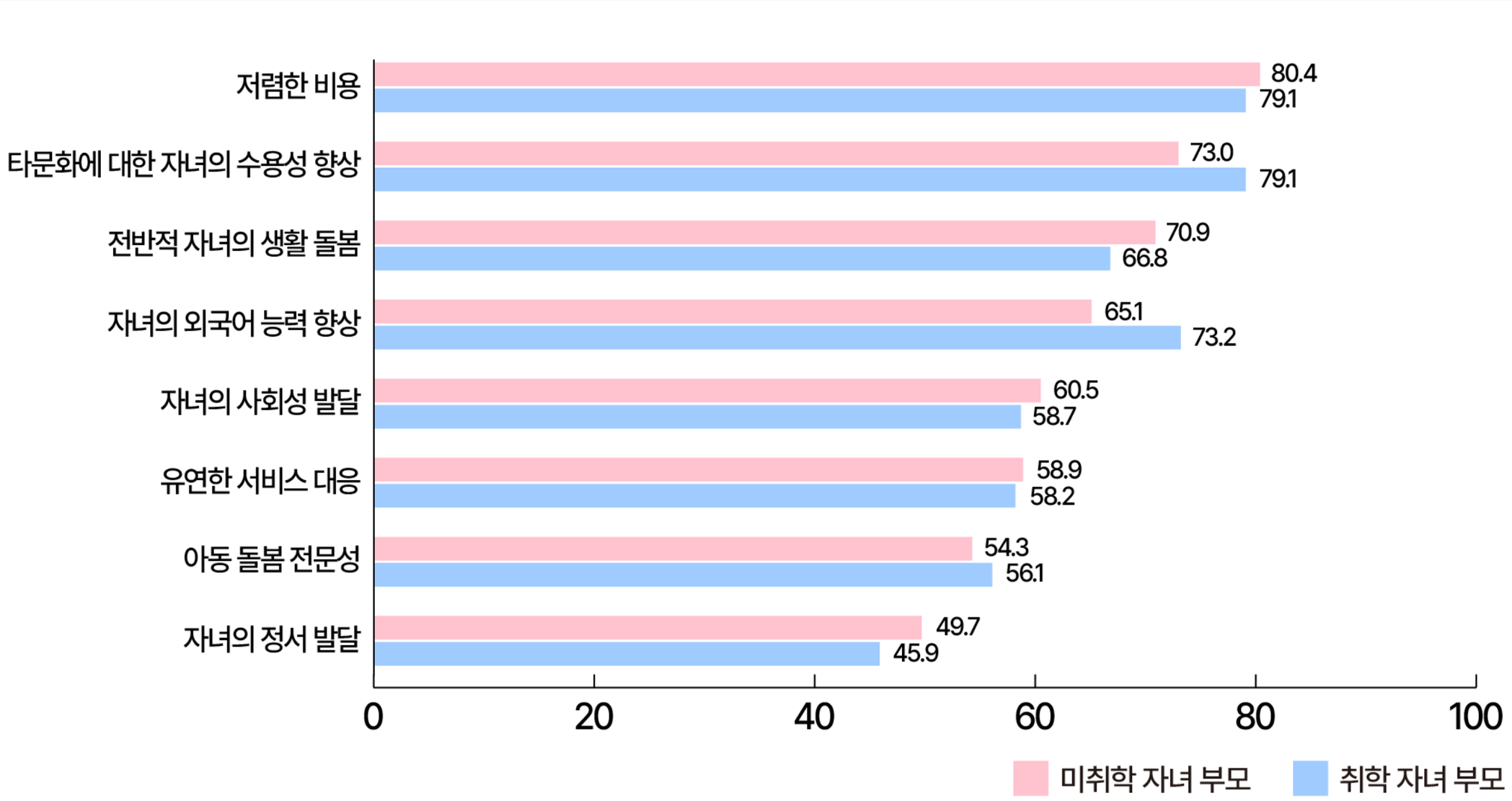
2

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한다면 기대하는 점

저렴한 비용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지만 자녀의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 향상을 기대하는 비율도 높은 수준이에요.

자녀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아요.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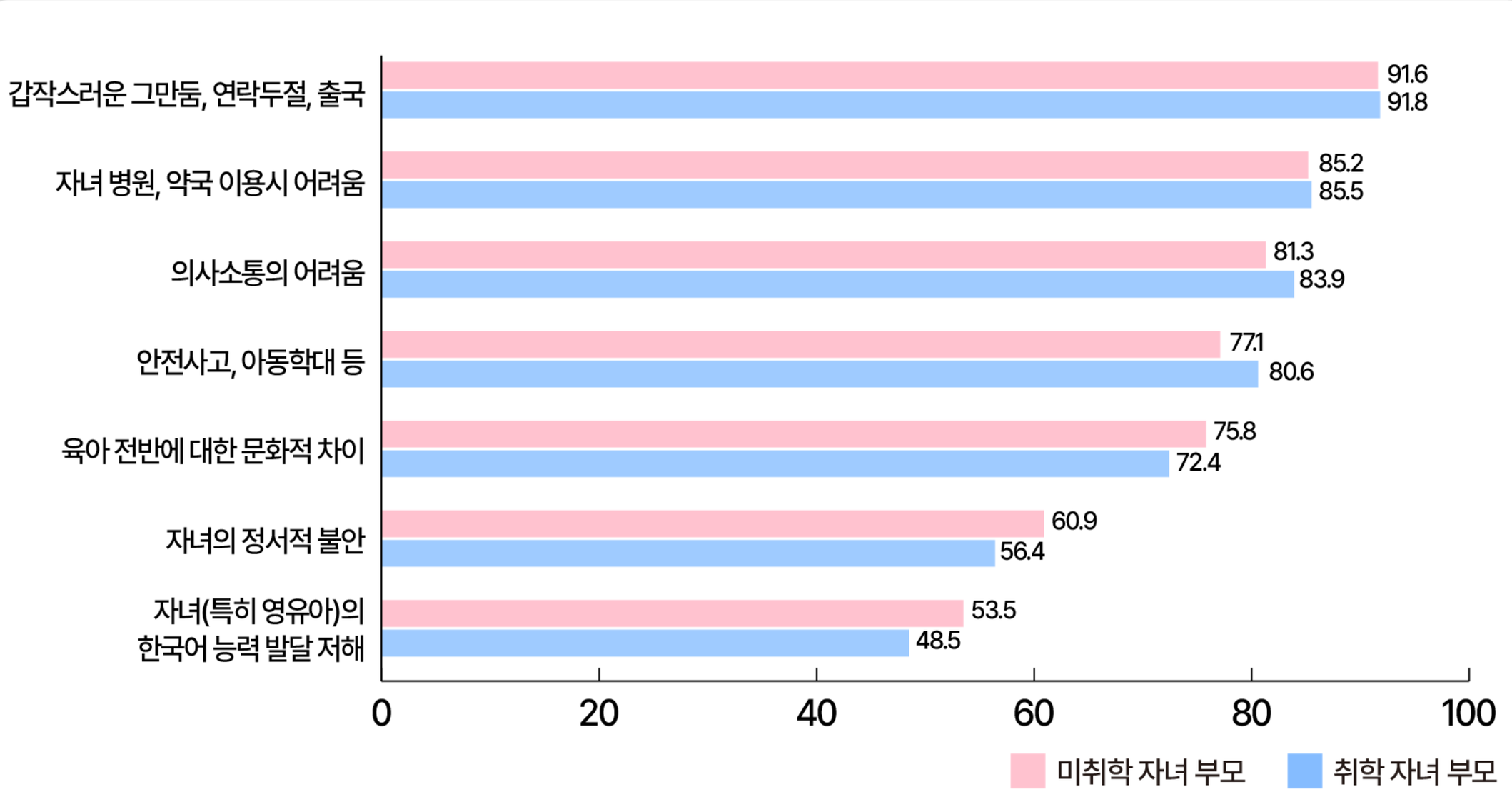
3

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한다면 우려하는 점

갑작스런 그만둠 등 불안정한 서비스를 우려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요.

자녀의 병원 이용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아요.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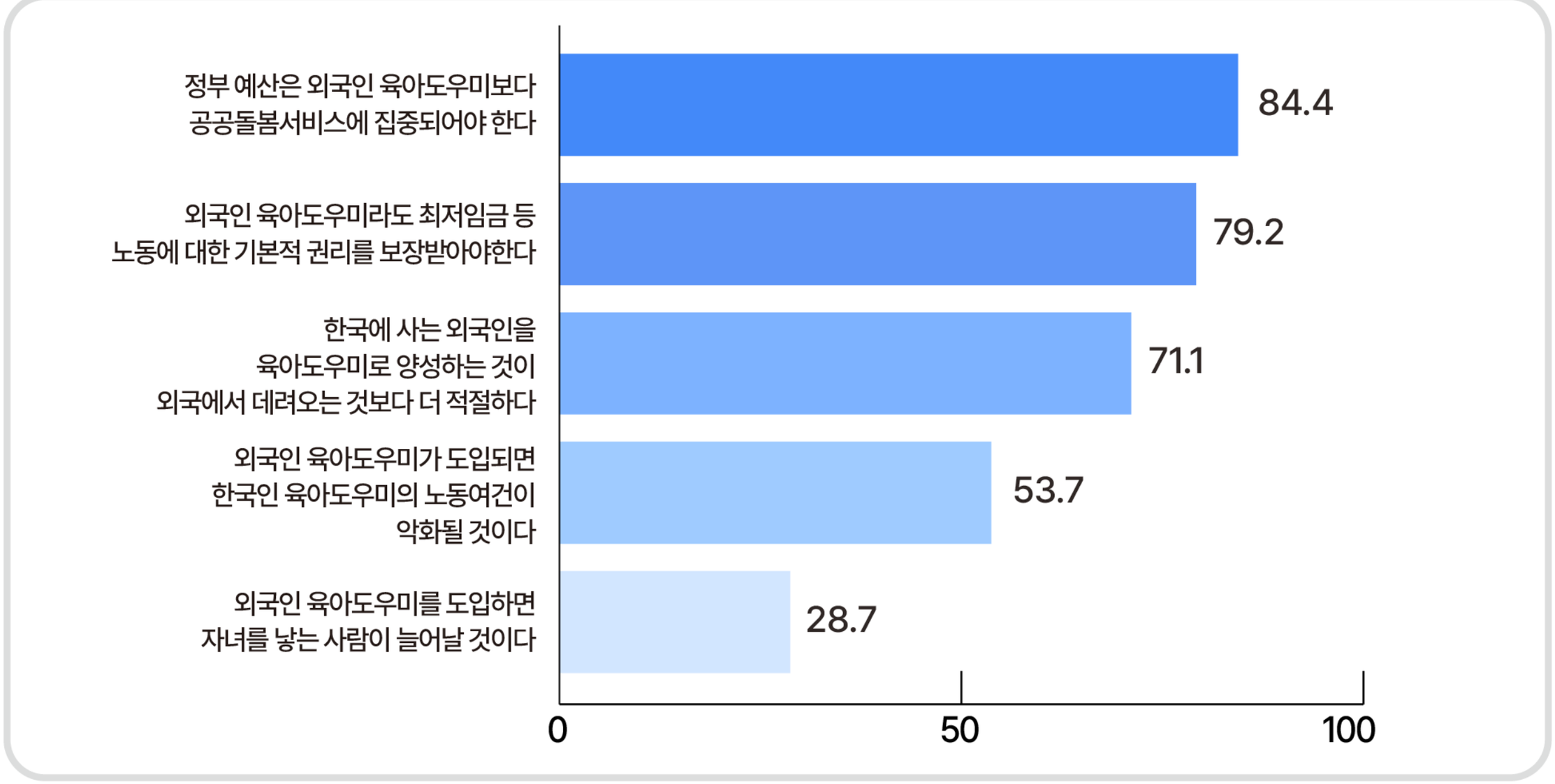
4

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

외국인 육아도우미가 도입된다고 출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부모는 소수예요.

공공돌봄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, 외국인 육아도우미도 최저임금 등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모가 다수예요.

(단위: %)



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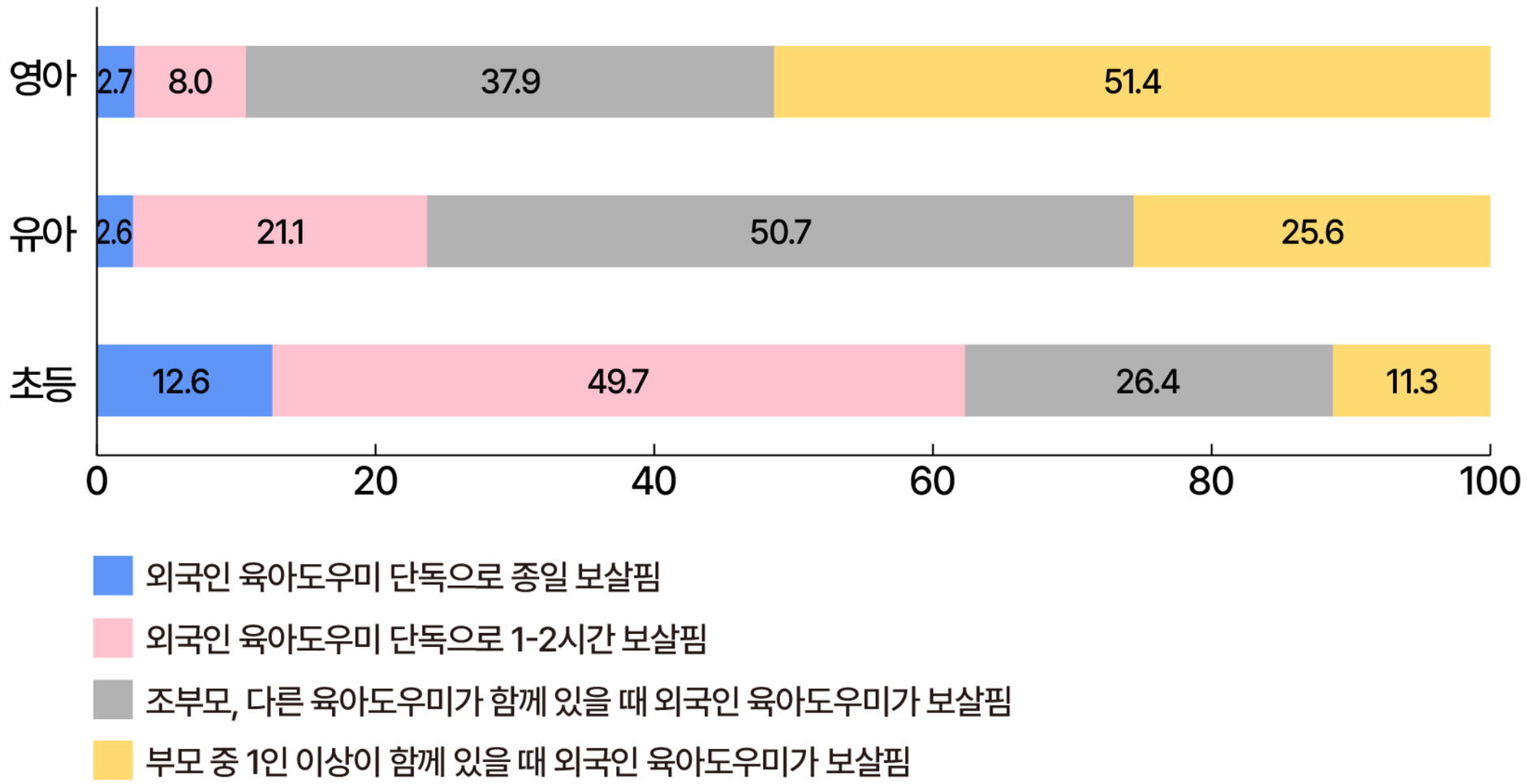
외국인 육아도우미 필요성과 적합한 돌봄방식

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약 21%였어요.

외국인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부모는 약 31%에요.

외국인 육아도우미 단독 영유아 보살핌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어요.
영유아는 부모 등이 함께 있을 때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돌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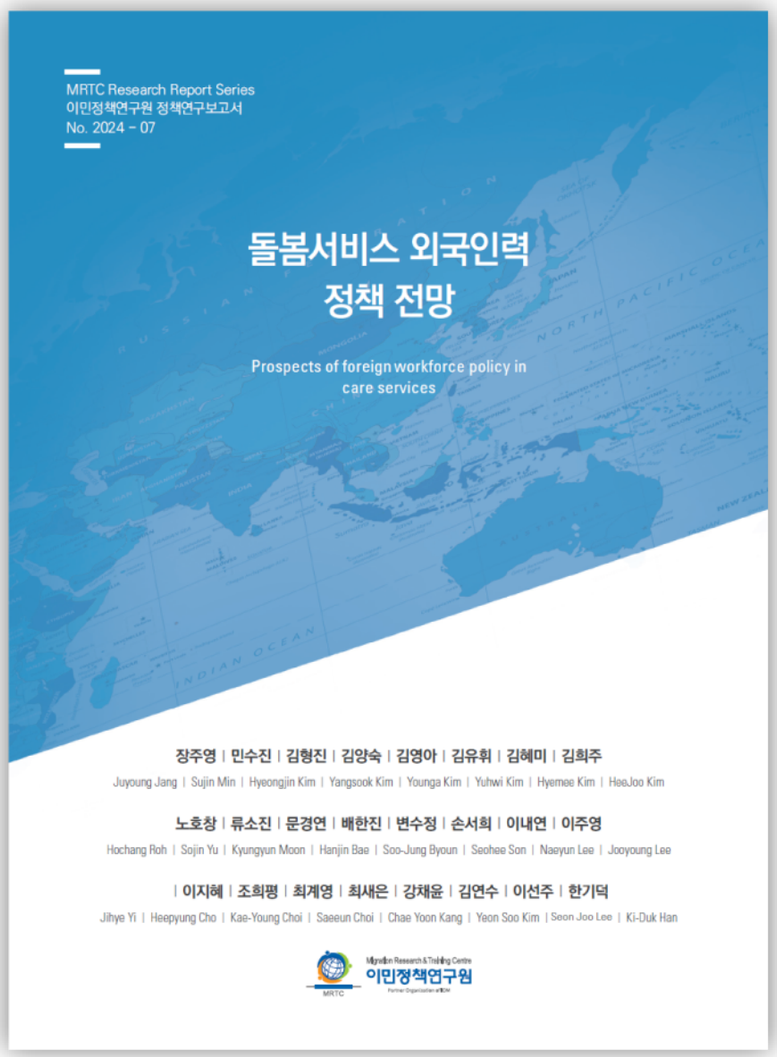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더 자세한 내용은

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>발간물>연구보고서에 게시된

연구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!



—

돌봄서비스 외국인력 정책 전망

장주영 | 민수진 | 김형진 | 김양숙 | 김영아 | 김유휘

김혜미 | 김희주 | 노호창 | 류소진 | 문경연 | 배한진 | 변수정

손서희 | 이내연 | 이주영 | 이지혜 | 조희평 | 최계영 | 최새은

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: 이민데이터센터(02-3788-8041, 8036)